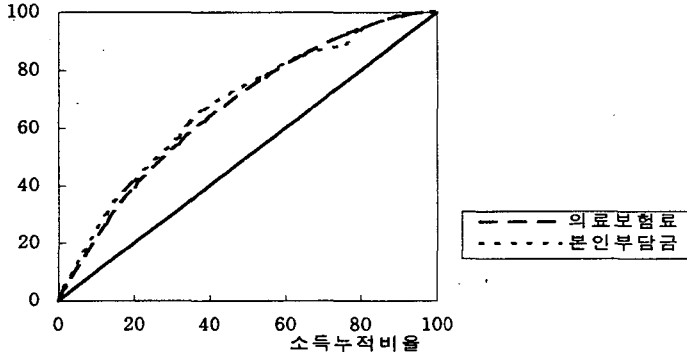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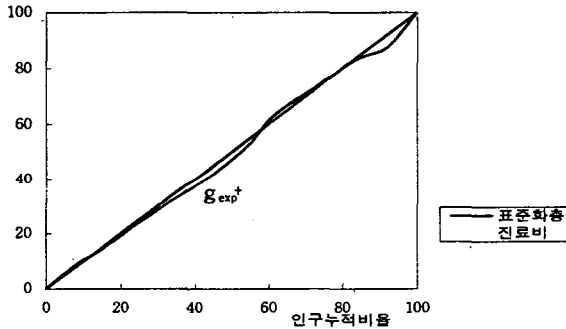


체 목	국 문	의료보험의 재원조달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영 문	Equities in the Service Utilization and Finance in the Korean Health Insurance Program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신영전 ¹⁾ , 박실비아 ²⁾ , 문옥륜 ³⁾ 1)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2)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3) 서울대 보건대학원		
	영 문	Young-Jeon Shin, Sylvia Park, Ok-Ryun Moon <i>Dp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 College of Medicine</i> <i>Korean Institute of Helath Management</i> <i>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i>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신영전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본 연구는 서울시 한 직장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에서 소득계층간 재원조달의 형평성과 건강수준,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소득계층별로 건강지표에 따른 건강수준을 비교한다.</p> <p>둘째, 소득계층별로 의료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금의 크기를 비교한다.</p> <p>셋째, 소득계층별로 의료서비스 이용상태를 비교한다.</p> <p>넷째, 소득계층별로 의료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금 지불상의 불형평의 크기를 계량화한다.</p> <p>다섯째, 소득계층별로 건강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불형평의 크기를 계량화한다.</p> <p>2. 연구 방법</p> <p>소득계층별 건강수준과 의료의 재원조달,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한 직장의료보험 조합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994년 6월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적 사항과 건강수준, 의료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강수준에 관한 질문은 모든 응답자가 기입하게 하였고,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지난 1개월간 의료이용사항을 응답자 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지난 1년간 의료이용사항은 의료보험 조합의 전산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의료보험료의 부담정도를 알기 위한 표준보수등급도 의료보험 조합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분석대상자는 1,447명이었다. 형평성의 측정에는 재원조달에서는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로 분석하였고,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은 Le Grand 지수를 사용하였다.</p>				

3. 연구결과



<그림1> 자원조달의 누적곡선(Suits지수)



<그림2> 표준화 총진료비의 누적곡선

* 소득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와 본인일부부담금의 불평등정도를 Kakwani 지수와 Suits지수는 각각 - 0.2396, - 0.3213였다. 본인일부부담금의 불평등정도는 각각 - 0.2690, -0.3424이었으며, 의료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총자원조달에서의 불평등정도는 - 0.2596, - 0.3356였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의료자원조달정도에서는 부자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였다.

* 인구학적 변수와 건강수준을 표준화하여 살펴본 소득계층별 사용진료비의 불평등 정도 결과에서는, 표준화 불평등 지수 HI_{wvp} 가 0.0193으로 저소득층이 필요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본 연구결과는 외국의 결과에 비해 의료보험 자원재원조달의 역진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이용양상에서는 비교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